

긴급진단 제주발담 세계농업유산 가능한가

국내외 전문가들 보완·충고 잇따라

'흑룡만리 제주 발담'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보완해야 할 난제를 만났다. 등재 신청서 준비 자문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주 발담의 국제적 가치를 평가하면서도 발담만큼으로는 등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충고를 했기 때문이다.



제주 발담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경작활동과 농업문화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최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제주를 찾아 현장답사하는 모습. 사진=한리일보 DB

“발담만으로 한계” 경작시스템·농업문화 등 중시

농법'의 등재 경험과 현재 등재 추진중인 시즈오카 다원의 추진 과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일본의 세계농업유산은 생물다양성이 계기가 됐으며 친환경 농업, 그리고 농업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 인정돼 등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도 떠오기 공생농법기구의 경우 농가의 20%가 유기농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등재를 추진 중인 시즈오카 다원의 경우 지난해 FAO의 실사가 이뤄졌는데, 농업과 문화의 융합, 전통적 농업문화의 보존상태, 농업유산의

브랜드화, 경관 가치, 농업유산의 과학적 규명, 세계적 관점에서의 차별성 등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제주자치도와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TF팀은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주문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후 수정보완해 등재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주관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지난 2002년 시작된 이래 최근들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전 세계의 독창적인 농업문화와 인류진화 시스템, 생물다양성을 보존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성취하고 통합적인 방식의 농촌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등재가 이뤄지고 있다.

등재 절차는 국가 추천을 받아 FAO본부에 신청하면 현지답사를 통해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11국 19개소가 등재돼 있으며, 19국 31개소가 후보군에 올라 있다.

강시영기자 sykang@ihalla.com

“日 적극적인 변화와 책임있는 행동을”

박근혜 대통령, 제94주년 3·1절 기념사 통해 강조



박근혜(사진)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한국과 일본이 아픈 과거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공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변화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그럴 때 비로소 양국 간에 굳건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는 자기 성찰의 거울이자 희망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이뤄질 때 공동 번영의 미래도 함께 열려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 세대에까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안 된다. 우리 세대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이 아픈 과거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공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변화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1000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본을 압박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민족의 공존과 공영은 조국 독립의 가치를 높이 들었던 선열들이 3·1 운동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준 고귀한 정신이자 유산”이라며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신뢰를 쌓아서 행복한 통일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화대=김치훈기자

서귀포 혁신도시 진입도로 내일 개통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회수동에서 제주혁신도시까지 진입도로 사업이 3년 6월만에 마무리돼 5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9년 8월 착공한 혁신도시 진입도로는 ‘회수-도순’ 2.8km 구간은 지난해 10월 이미 개통했고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

은 ‘도순-혁신도시’간 2.88km이다. 진입도로 전체 사업비는 보상비 64억원 등 266억원이 투자됐다. 혁신도시 진입도로가 완공되면서 회수-혁신도시간 소요시간이 7-8분으로 절반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영석기자

여야 정부조직법 처리 합의 또 실패

청와대 “대국민 호소” vs 야당 “입법부 압박 불과”

여야가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협상을 앞두고 긴급기자회견을 2번씩이나 갖고 국회 처리 합의를 호소하고, 이날 여야 지도부와 청와대 회동까지 제안했지만 실패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약 1시간20분 동안 계속된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원내대표간 회담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은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열릴 예정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청와대 회동이 불발됐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일과 3일 오전 9시 김행 청와대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가 도와달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5일 마감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여야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

하게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청와대의 긴급기자회견과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법개편안 처리를 촉구한 것은 대국민 호소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결국 입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여당에 협상 자율권을 줄 것을 호소해온 민주당으로서, 청와대의 긴급기자회견은 민주당의 바람을 수용할 뜻이 전혀 없다는 최후통첩에 불과하다. 여야에 대화의 여지를 차단한 청와대의 기자회견은 야당무시는 물론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치훈기자

올해 자전거 인프라 구축 33억 투자

제주도가 올해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33억원을 투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인프라 구축과 자전

거도로 정비사업에 올해 총 33억 원을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은 해안도로와 일주도로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613억원을 투자, 138.1km의 자전거도로가 구축될 예정이며 지난해까지 이미 52km가 구축됐다. 제주도는 올해 한림-월령, 상모-일과 등 9.5km에 29억을 투자, 자전거도로 구축과 휴게시설, 자전거보관대 등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등 4억원을 투자, 단절구간 연결, 포장 불량구간 정비 등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위영석기자 yswi@ihalla.com

뉴스-in

“전국과 세계에 4:3 알리는 계기됐으면...”

문재인 의원 ‘지슬’ 관람

○...문재인 국회의원(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이 대통령 선거 후 처음으로 1일 제주를 방문해 영화 ‘지슬’을 관람하면서 흥행몰이에 동참. 문 의원은 개봉일 제주CGV에서 열린 무대인사에 부인 김정숙씨와 참석해 “많은 분들이 영화를 함께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주를 찾았다.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4:3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사격.

그는 이어 “지슬이 전국과 세계로 뻗어나가 4:3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4:3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표성준기자

120콜센터 민원해결 특목

○...제주안내 120콜센터가 도민·관광객의 궁금한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로 자리매김해 눈길.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120콜센터 상담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단순전화 중계(17%)에서 민원상담(72%)이 주를 이루고 상담건수도 2011년 비해 177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 도 관계자는 “콜센터의 민원상담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직접 상담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상담사 2명을 추가로 총원하는 등 도민·관광객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 오은지기자

축산화제 예방 서한 발송

○...제주시가 반복되는 축사 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 김상오 시장 명의의 서한은 “국제곡물가 상승, 한·미 FTA 발효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커져, 정전으로 인한 화재로 애써 키운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 제주시 관계자는 “3000두 이상의 양돈장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달 전기 안전점검을 이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농가는 규모 이하로 전기안전에 취약하다”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 문미숙기자

육지 여행 전문 여행사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백두산 천지 특가대모집
순천만 정원 박람회
★★ 육지 모든 일정은 10명 이상 매일 출발합니다★★
목적지 기간 금액 비고
백두산 관광 8월 26일 1회출발 1인 750,000 4박5일, 배양복
순천만 정원 박람회 4월 20일 ~10월 20일 10명 이상 출발 가능
제주 출발 08:20, 완도 출발-16:00(2시간 50분 소요)
제주 출발 09:00
해남 우수영출발-14:40분(소유시간 2시간 30분)
육지관광 (별도 문의 바랍니다.) 거문도, 백도, 홍도, 흑산도, 강원도 일원
남해안권 호남권 울릉도
자세한 사항은 상담 바랍니다.
상담 유 옥 종 010-5015-1951
미도 항공 여행사
위치:오라오거리 ☎064)713-1951
010-5015-1951, 010-5618-1000

제주트렌스
제주 화물 사업부
전국 <-> 제주 화물 운송 전문
-제주화물 운송비용 탄력적-
T. 1644-9224 F. 02)2615-2402
서울사무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812번지 서부트럭터미널 B동 104호
제주 이사 사업부
사무실이사 전문
제주도 포장이사 전문
전국 <-> 제주 포장이사 전문
- 사다리차(릴리카) 고층 2대 / 저층 2대 -
T. 064)745-0024 F. 064)744-2404
제주사무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동 698-3번지 101호
문의사항 항상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증-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혈압,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품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기부전클리닉 ▶조루약물주입법
▶전립선클리닉 ▶남성형성기질환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제주은행 2F

대출
1. 약속어음, 전자어음, 당좌, 가계수표 할인
2. 부동산담보대출(순위 관계 없음)
◆금리 : 연 36%, 연체율 연39%
(주)소비자금융114(2F)
-터미널
오라파출소
삼성디지털프라자
애환운동장
●한국국민
●국제종합계
●애환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복번호: 제주시-18호
(주)소비자대부금융114
CONSUMER FINANCE
CONSUMER FINANCE114CO.,LTD
제주시 삼도동 560-1
전화 : 748-7777 (야간) 010-9838-6080